

횡성군 중학생 교류단

중국 자매도시 린하이시 방문

횡성군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자매도시 와의 우호를 다지고 글로벌 견문을 넓히기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횡성군은 관내 중학생 8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교류단이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와의 교류를 위해 9일 오전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지속해 온 정례적 교육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3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다.

교류단은 린하이시 현지 가정에 머무는 '홈스테이'를 통해 중국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방문 기간 중 학생들은 자매도시 학교를 견학하며 현지 교육 시스템을 살피고, 박물관 탐방과 민속문화 체험 등을 통해 린하이시의 역사와 전통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일정 후반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기념관을 방문해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계적 명소인 서호를 관람하며 국제적 소양을 쌓을 계획이다.

진연호 군 차지행정과장은 "이번 방문이 청소년들이 열린 마음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폭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 한파쉼터에

방한물품 단계적 지원 추진

원주시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파쉼터를 중심으로 방한물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서 원주시는 불특정 다수의 한파 취약계층이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편의점 등 접근성이 높은 쉼터를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긴급 지원 재난 물품인 방한위미 190개와 핫팩 2,160개를 우선 배부했다.

이어 2차 지원으로 공공청사와 경로당 한파쉼터를 중심으로 핫팩 1만 2,400개를 추가 배부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공공청사 내 한파쉼터에는 핫팩 950개를 비치했으며, 경로당 한파쉼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직접 배부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파 행동요령 안내를 병행해 주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한랭질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한파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한파쉼터 운영 점검과 현장 관리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주희 안전총괄과장은 "방한물품 1차 배부를 통해 긴급 대응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2차 배부로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파쉼터를 적극 이용하고, 한파 행동요령을 실천해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4개 핵심분야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2월14일(토)부터 2월18일(수)까지 5일간, 4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 5일간 이어지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민생경제 활력 △안전·보건 강화 △관광·복지 제공 △교통·생활 편의 등 4개 핵심 분야 19개 과제가 포함됐다.

도와 시군은 설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도·시군 3,600여 명)을 운영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월 3일부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집중 관리하고, 바가지금 균형을 위해 시군별 신고센터 운영과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도내 63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진 캠페인, 강원상품권 발행 확대(40억 원→60억 원, 5% 할인), 강원더몰 설맞이 온라인 기획전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둘째, 도는 연휴 기간 안전한 강원 구현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의료·방역 체계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상황실, 소방상황반, 산불대책반, 경보통신반 등 4개 반을 24시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응급의료기관 27개소에는 1대1 전단체임관을 지정·운영하고, 문의는 병·의원과 약국 1,173개소를 확보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SF·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 26개소와 거점 소독시설 19개소를 24시간 운

영한다.

셋째, 설 연휴 기간 도내 관광 활성화, 소외계층 나눔 및 취약계층 돌봄 공백 해소로 모두가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1~2월 추천 여행지(태백, 홍천, 철원, 원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입장료 및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디지털 관광주민증(131개소)과 강원생활도민증(304개소) 발급 대상자에게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평창 대관령눈꽃축제 등 지역 축제와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도와 시군 공무원 등 5,000여 명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결식아동·노숙인·독거노인·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시설 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3년 차 선정

평창군이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2026년까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연속 지정되며, 지역 여건에 맞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특히 2026년에는 국고보조금 2천5백십만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거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포용적 학습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별달장애인, 지체·청각·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장애인 당시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과 힐링캠프,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평창군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입문 과정'을 운영한 것에 이어, 2026년에는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심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료자들은 향후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파견되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지역사회에 확산하여 장애인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동해시, 산불취약시기 화목보일러 집중 점검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산불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담당자를 운영해 주 1회 이상 정기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광진 농지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세대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춘천시, 중동 헬스케어 정조준 'WHX Dubai 2026' 참가

강원공동관에 춘천지역 기업 5곳 참가, 수출·투자 연계 집중 지원

'아랍헬스' 개편 후 첫 WHX Dubai… 1:1 비즈매칭·IR로 성과 노려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손잡고 지역 내 혁신 의료기기 기업들의 중동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World Health Expo Dubai 2026'(WHX Dubai 2026)에 참가한다.

이번 일정의 핵심은 두바이 전시센터에서 열리는 WHX Dubai 강원공동관 운영이다. 강원공동관에는 춘천지역의 기업인 비엘테크㈜, 주지오메스소프트, 주뉴로이어즈, 주휴피트, 주

출하는 '수출의 장'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협력 구조가 재편되는 시점에 맞춰, 춘천지역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춘천시는 전시 일정과 연계해 강원도, 원주시와 함께 두바이 현지 대형병원을 방문해 의료기기 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넓힌다.

산학 협력과 기술 교류를 위한 일정도 포함됐다. 춘천시는 두바이 고등기술대학(HCT 대학)을 방문해 의료기기 분야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인력 교류 가능성을 논의하며 연구·기술 협력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 기반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세계 한인 무역협회(OKTA) 두바이지회와의 수출입 확대 협력 일정을 통해 현지 유통망과 재외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인 시장 진입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제1회「속초시 자매도시위원회」 개최

속초시는 9일 오후 시청 본관 2층 디지털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속초시 자매도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단체와 민간 자매시위원회 등 18명을 자매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2026년 속초시 자매도시 교류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자문을 진행했다.

속초시는 현재 국내 6개(서울특별시 종구·종로구, 경기도 오산시·용인시,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 국외 3개(미국 뉴욕시, 일본 오사카시, 중국 훈춘시) 등 총 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관광·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교류·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2026년 속초시 자매도시 교류 추진 계획'을 중

심으로 주요 사업 공유와 위원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자매도시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견을 공유해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직원들과 관계기관·단체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명절맞이 장보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불황 타격이 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기관과 단체에 온누리상품권과 속초시립상품권 활용,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소비 촉진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